



www.eulji.ac.kr

을지대학보

THE EULJI UNIVERSITY TIMES

제295호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1967년 12월 1일 창간

발행인 홍성희 주간 문보영
편집장 심수연 디자인 명진C&P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TEL 031-740-7126
FAX 031-740-7328 E-mail hakbo@eulji.ac.kr

학보사 인스타그램



학보사 카카오톡 채널



을지대학보 제295호 CONTENTS

- 01 1면보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023 을지축전'
- 02 학내보도 학내소식
- 03 대학원·의료원·동문 소식
- 04 사회·문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팁문화 도입
- 05 지식·학생 동물원과 동물권·기부 챌린지
- 06 2023 을지축전
- 07 추모 전증희 을지재단 명예회장 소천
- 08 인터뷰 댄스동아리 DNG 회장 김지현
- 09 기자수첩 의무경찰제 재도입
- 10 을지대학교 발전기금·장학금 모금 캠페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023 을지축전'

지난 10월 5일(목)부터 10월 6일(금)까지 진행된 '2023 을지축전'이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축제인만큼 예년보다 축제의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각 캠퍼스 총학생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축제에서는 캠퍼스별 특색있는 테마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을지 축전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본부&학교부스 ▲학생부스 ▲푸드트럭 ▲포토존 ▲야식당 ▲지역부스 ▲플리마켓 ▲동아리공연 ▲복면가왕 ▲성남시 지역공연 ▲아티스트 무대 ▲DJ파티 ▲BBQ 파티 ▲을지로또 등이 있다.

특히 을지대학교는 이번 축제를 재학생뿐만 아니라 성남시 지역주민, 기업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테마로 기획하였다. 이에 성남을 연고로 한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을지대학교가 지역사회와의 인적·물적 교류의 장이 되었다. 축제에는 약 2,000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 청소년과 인근 대학교 학생들의 공연이 이루어졌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부스가 마련되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고용센터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블랙야크 ▲태안군 인공기능융합산업진흥원에서 학생 및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며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이 중심이 된 플리마켓이 열려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홍성희 총장은 을지축전을 축하하기 위해 축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부스를 체험하였고, 학생들에게 격려의 인사와 함께 격려금을 전달했다.

을지대학교는 축제의 규모가 컸던 만큼 혼잡한 상황에서도 안전요원 배치 및 차량 통제를 통하여 축제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기했다. 축제에 참여하는 학우들과 지역주민 또한 그에 따라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활기찬 화합의 장이 되었던 '2023 을지축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위한 플리마켓

을지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을지대학교-블랙야크,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

을지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비와이엔블랙야크가 ESG 상호 교류 및 지속 가능 고품질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은 9월 22일(금)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진행되었으며, 박항식 을지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과 ㈜비와이엔블랙야크 상무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ESG 활동 협력, 지속 가능한 고품질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교류 등 양 기관의 상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협력을 약속했다.

블랙야크는 국내 투명 페트병 자원 순환 시스템을 이용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뿐 아니라 대학교 관련 친환경 제품에 대한 협력도 진행할 계획이다.

을지대는 기업과 함께하는 자원 순환 경제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해 앞으로 ESG 산학 협력 우수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박항식 을지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앞으로 블랙야크가 추구하는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산업 진흥에 대학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주도한 한승진 을지대 학생처장은 "고품질 자원순환체계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실천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을지대학교

을지대학교, 경기 북부 5개 대학 연합 입시설명회 마무리

을지대학교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 대비 보건의료 계열 입시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보건의료 계열을 갖춘 경기 북부 소재 5개 대학(을지·신한·동양대·진차의과대)이 연합으로 참여한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1부 대학별 2024학년도 수시입학 전형 안내, 2부 진학사 입시전략 연구소 윤정은 선임연구원의 입시특강, 3부 대학별 보건의료 전공 교수의 1대1 입시 상담 등이 진행됐다.

김명철 을지대 입학관리처장은 "관심 있는 많은 분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보건의료 계열이라는 원포인트 입시설명회를 열었다"라며 "경기 북부 5개 대학 입시설명회를 통해 대학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 높은 진학 정보 제공으로 지역 및 학교 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을지대학교 한마음봉사단

한마음봉사단 김다현 학생, 의정부시 '2023 올해의 청년상' 수상

지난 9월 16일(토) 을지대학교 한마음봉사단 김다현 학생(의정부캠퍼스 간호학과 3학년)이 의정부시 '2023년 올해의 청년상' 청년봉사자 부문에서 수상하였다.



'올해의 청년상'은 지역사회 및 청년정책 발전에 귀감이 되는 청년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다현 학생은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김다현 학생은 한마음봉사단 학생봉사단 문체부 부장으로서 봉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다양한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을지대학교를 대표하여 지역사회 곳곳의 봉사를 수행함으로써 인간사랑·생명존중 건학이념과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

한마음봉사단 김다현 학생은 "한마음봉사단 단원으로 의정부시에서 올해의 청년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큰 영광이다"라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교양학부

신상진 성남시장, 을지대학교 'EU 인성세미나' 특강

지난 10월 13일(금) 성남캠퍼스 밀레니엄홀에서 신상진 성남 시장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였다. 신 시장은 을지대학교 학생 100여 명에게 '후회 없는 직업 선택'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수강생들의 진솔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면서 학생들과 활발하게 의사소통에 임하였다.



을지대학교 교양학부(학부장 김경섭 교수)는 매년 2학기에 대학의 교육이념인 '인간사랑·생명존중'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EU 인성세미나> 교과목을 개설해 운영해왔다.

수업은 매주 금요일 오후에 사회 각계각층의 명사를 초청해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더 넓은 시야를 갖게되며 궁극적으로 인성 함양과 진로 적성 등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바이오융합대학 중독재활복지학과

중독재활복지학과, 연천군 푸르내마을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지난 9월 22일(금)부터 23일(토)까지 1박 2일간 중독재활복지학과와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 전곡농협이 협약을 맺어 도농상생 대학생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봉사활동은 중독재활복지학과 백형의 학과장의 인솔 하에 안치형 학생회장을 포함하여 재학생 32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연천군 전곡농협 관내 조합원 농가에 사과 수확 및 인삼모 부속물 제거 작업 등을 하며 연천군 푸르내마을에 일손을 보탰다.

을지대학교 피부생명과학연구소

을지대 피부생명과학연구소-오가노이드사이언스, 전략적 협력 MOU 체결

을지대 피부생명과학연구소(소장 이창석, 미용화장품과학과 교수)와 오가노이드사이언스(대표 유종만)은 8월 29일(화),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측의 전문성을 결합해 다양한 화장품 소재의 효능평가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10월부터 화장품 소재의 효능평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본 협약을 통해 양자 간에 기술 교류, 프로젝트의 공동 수행, 공동마케팅 및 영업 분야에 대해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며, 더불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의 발굴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을지대 피부생명과학연구소는 을지대 미용화장품과학과 교수들이 개설한 연구센터로, 화장품 바이오 효능 및 제형 악리를 연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화장품 기업체들과 산학협력을 통해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화장품 효능 평가 연구를 강화하고, 다양한 화장품 효능 평가 수행연구와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해당 분야에서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위생학과, '제55회 보건장학회 장학생 선발'
치의학부문 장학생 선정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위생학과 김형주(박사과정)와 성치윤(석사과정) 원생은 '제55회 보건장학회 장학생 선발'에서 치의학 부문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지난 8월 21일(월) 서울 조선포텔에서 열린 '보건장학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다.

보건장학회는 1963년 고(故) 유일환 박사가 보건연구 지원을 위해 설립한 재단 법인으로 국내 보건 분야 대학(원)생들의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2023년에는 의학 18명, 약학 11명, 치의학 3명, 한의학 6명, 간호학 16명, 사회복지학 5명의 보건 부문별 장학생이 선발되어 500만 원씩 총 3억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선발된 김형주 원생은 '범이론적 모형 및 ADDIE 모형을 적용한 금연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를 주제로, 성치윤 원생은 '국내에서 시판되는 여러 종류의 마라탕 소스가 전문가 미백술 후 우치 착색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하였다. 대학원생들은 "관심 있는 주제로 보건장학회에 선발되고 장학금의 수혜자가 되어 정말 기쁘다. 연구를 통해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을지대학교 치위생학과 학과장 임희정 교수는 "보건장학회는 60여 년간 오랜 전통 속에 1,500명 정도에게 우수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였는데, 우리 을지대학교 대학원생이 장학생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자랑스럽고 열정과 노력을 칭찬한다. 저 또한 이번 수상을 추진력 삼아 열심히 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날' 행사 개최



지난 9월 14일(목),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일현홀에서 열린 '제12회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날' 행사에 만성골수성 백혈병(CML) 환자 및 가족, 일반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을지재단 홍보영상 ▲이승훈 의정부을지대병원장 축사 ▲2022-2023 CML 영상 ▲의정부을지대병원 혈액암센터 김동욱 교수의 '백혈병 완치로 가는 길' 건강강좌 ▲환우들의 투병 극복 이야기 ▲환우 음악 공연 ▲가수 라마 최진규 공연이 진행됐으며, 경품추첨과 기념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동욱 교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약 15-20%는 치료에 실패해 재발병한다"라며 "이번 행사는 을지대학교의료원이 재발병 치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새로운 유전자 발굴, 고감도 진단법 및 부작용을 최소화한 새로운 신약 개발의 기초 및 임상 현황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환자와 보호자 등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로 매년 의미 있는 행사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날(CML Day)'는 악성 혈액암의 일종으로 인간의 23쌍 염색체 중 9번, 22번 염색체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 김동욱 교수 연구팀이 환자 및 가족의 극복 의지와 희망을 북돋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9월 개최된다.

이승훈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장은 "만성골수성백혈병(CML) 환자들에게 치료의 중요성과 완치의 희망을 주기 위해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날(CML Day)' 행사를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날' 행사는 매년 9월 23개국 이상에서 진행된다.

동문 소식

의료경영학과 박은경 동문, '닥터제이케이' 대표로 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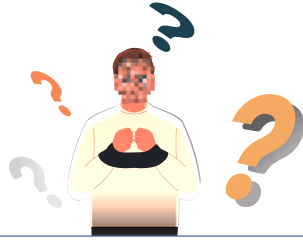
의료경영학과 96학번 박은경 동문은 졸업 후 의료 장비 제조회사인 (주)메디아나를 거쳐 현재 (주)쿠앤크스 이사 및 자회사 '닥터제이케이' 대표를 맡고 있다. 닥터제이케이 회사는 Genterm Medical社(미국)의 Hyper-Hypothermia system, Barkey社(독일) Patient temperature manager system, Dr Japan社(일본) Epidural needle의 국내 총판을 맡아 수입 및 국내 유수의 병원에 판매하는 회사로 국내 빅5 병원에 다양한 의료기기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박은경 동문은 최근 수입한 의료기기 판매에 수십억의 매출에 성공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인정받는 의료기기 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실시한 의료경영학과와의 인턴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관리차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은경 동문은 "모교와 후배들을 위하여 인턴제도 및 현장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배들의 취업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며, "지속해서 의료경영학과와 훌륭한 인재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강력범죄에 휘두른 철퇴?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제도



박은서 학생기자 enhfarm@g.eulji.ac.kr

지난 7월,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무작위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며칠 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여름 전국 각지에서 무작위로 칼부림하는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무엇이든 어떤 역사를 밟아왔는지, 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제도의 역사와 알 권리

사형 제도가 활발히 진행되던 90년대까지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개인 정보를 뉴스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1998년 대법원은 “일반 국민으로서 범죄에 대해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해도 범인이 누구라는 것까지 알아야 할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선고했다. 이는 사실상 법적으로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봉쇄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로도 언론사들이 범죄자의 신상을 캐내 보도하는 등 범죄자의 신상에 관한 관심은 끊이지 않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위험을 안으면서도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열을 올렸다.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경종을 울렸던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이 제도는 활발히 시행되기에 이른다.

아쉬운 논의 시기와 경계해야 할 것들

해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전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피의자는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고 검사가 수사 과정 중 기소를 하면 그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된다. 한국에서는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제도가 제정돼 있으므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피고인도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가 불가하다는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사법

절차와 관련된 정보들을 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제도가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범죄율의 증감은 객관적으로 체감이 어렵기 때문이다. 신상 정보 공개를 하나의 스포츠를 즐기듯, 아직 혐의점이 확실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험뜯는 행위에 집중하는 일 역시 만연하다. 덧붙여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정당한 사법의 범위 밖에서 악용되는 해당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알 권리의 탈을 쓴 사법의 범위 밖에서 처벌과 통제의 역할로 남용되지 않도록 신상 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건강한 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피의자에게 미치는 영향

하지만 신상 정보 공개제도가 부정적인 면모만 지닌 것은 아니다. 제도의 시행 이후 범죄자들이 대중 앞에 본인의 범죄 사실과 함께 사적인 영역까지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보다 수사에 협조하는 경향도 있다. 제도 자체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다수가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징벌한다는 카타르시스의 감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 제도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볼 수 있다. 처벌의 목적은 복수 감정에 기초한 ‘뜨거운’ 개념이 아닌 문명화된 ‘차가운’ 이성에 기반을 둔다. 단순히 시민들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의자들로부터 유의미한 수사 동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신상 정보 공개제도의 장점이다.

우리가 원해야 할 철퇴

범죄에 노출된 시민들이 신상 정보 공개를 원하는 것은 강력범죄에 대해 두려움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범죄자의 신상을 파악해 자신과 접촉할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공포심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흉악범죄의 발생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제반 정책이다. 신상 정보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효과를 위해서는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필두로 범죄자 교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 사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할까?

팁 문화 도입



강주연 학생기자 0519jenny@naver.com

지난 7월 19일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블루에 ‘감사 팁’ 기능을 시범 도입하면서 ‘팁 문화’가 이슈화되고 있다. ‘팁(tip·봉사료)’은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일정 대금 이외에 자발적으로 더 챙겨주는 돈을 의미한다. 팁 문화는 일부 서구권에서는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한국에선 그동안 다소 생소한 문화였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하여 미국처럼 팁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가게들이 늘어나며 ‘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임금의 일부

이러한 한국의 팁 논란을 논하기 전 먼저 외국의 팁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요새 대부분 서구권은 팁을 강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팁 문화가 사라져가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히 팁이 당연시되는 국가들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있다. 이 두 국가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임금이 사실상 팁을 포함해서 계산되며, 애초에 팁을 받는 것을 전제로 임금이 낮게 책정된다. 즉 팁은 보너스가 아닌 급여의 개념이기에 고용자가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할 임금의 일정 부분을 소비자한테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만약 팁을 받지 못한다면 수입에 상당한 타격이 있는 것이 불가피하기에 노동자들 입장에서 팁이란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두 국가에서의 팁 문화는 단순한 문화라고 하기보단 마치 보이지 않는 법처럼 관례로 규정돼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서 상황에도 부합할까?

그렇다면 서구의 팁 문화가 국내에서도 자리잡을 수 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살펴볼 점들이 많다. 우선 경제적으로 임금 결정 방식이 나라마다 다른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

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최저임금만으로도 먹고사는 게 어느 정도 보장되도록 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일괄 책정되어 있는데 굳이 팁을 추가로 도입하는 건 과도하다. 또한 한국은 가격표시제에 따라 가격 정보를 표시해왔고,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격이 고정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팁을 도입하면 모든 가격이 ‘유동 가격’처럼 되어버려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한편 문화적으로 한국인은 대놓고 ‘친절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 알아서 주면 몰라도 상대가 먼저 이를 바라는 것은 무례한 일로 여겨지기 십상이기에 팁이 은근슬쩍 당연시되기 시작하면 이에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많아질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팁 문화는 국내에서 도입될 당위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엇갈리는 의견, 그러나 한쪽으로 기울어 가는 민심

이처럼 한국에선 찾아보기 힘들었던 팁 문화가 처음 도입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에 만족했다면 부담되지 않는 액수의 팁을 주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한 데이터 플랫폼이 카카오T 팁 기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1.7%로 압도적이었다. 팁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미 정적 가격에 서비스 비용이 포함됐기에 팁은 불필요하며, 고용주가 치러야 할 임금을 대체하는 격이기에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또 서민들이 가뜩이나 고물가로 시달리고 있는 현실점에서 팁 도입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업체 측에선 어차피 팁 지불은 자율적이라지만, 이는 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찬 노동자 앞에서 지불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분위기 자체가 불쾌하고 부담스럽다는 소비자들의 입장을 간과한 것일 수 있다.

성숙한 사회 문화가 필요한 시점

임금 일부가 팁으로 고정되어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팁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서구권과 최저임금이 고정적으로 보장된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다르다. 고물가 시대에 설상가상으로 팁 제도가 큰 필요성 없이 도입된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노동자는 소비자에게 팁을 강요하지 않고, 소비자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았고 팁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제공할 줄 아는, 성숙하고 자발적인 사회를 이루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락과 보호, 극단의 이면

동물원과 동물권

윤재연 학생기자 wkofcy@gmail.com



근래 한 테마파크는 판다 '푸바오'로 큰 관심을 끌었다. 해당 테마파크의 간판스타 푸바오는 2020년 국내 최초 자연번식으로 태어난 판다로 현재 뜨거운 인기를 누리는 중이다. 푸바오의 인기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사육사와의 관계성이 담긴 영상에서부터 시작한다. 영상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며 이곳의 동물원에는 관람객이 급증했고, 이어 동물원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간중심적이고 소비적인 동물원이 과연 친숙하고 거리낌없이 갈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다.

경험 확장의 공간

동물원은 여러 동물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시설로 동물들을 모아 사육하고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한다. 고대 문명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동물원은 지배계급 권력의 상징이자 오락거리로 여겨진 시간이 길다. 기원전부터 시작된 이 경향은 15~18세기경 유럽에서 더욱 심해지기도 했다. 20세기, 야생의 재현을 시도한 현대의 생태형 동물원이 등장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 동물원에서는 동물을 직접 관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지식을 넓힐 수 있다. 동물을 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더불어 경험을 통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을 남기게 된다. 또한 현대의 동물원은 동물의 보호와 번식, 연구도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단순한 오락과 휴식 공간의 의미만을 갖진 않는다.

자유의지의 박탈

그렇다면 동물의 관점에서 동물원은 어떤 모습일까? 동물원의 문제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무리 안에서 빙빙 도는 등 틀에 벗어난 행동인 동물들의 '정형행동(stereotypy)'이다. 자연스러운 삶을 살 의지를 박탈당하고 인간에 의해 삶이 통제당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얼룩

말 '세로', 뼈뺀 말라갈비뼈가 다 보이는 갈비 사자 '바람이' 모두 행복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 동물원, 동물보호협회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 되는데 동물원에서의 삶이 무조건적인 생명 연장은 아니다. 사육 하의 코끼리는 평균 40년을 살지만, 야생의 코끼리는 평균 60~70년을 산다. 외부로 인한 스트레스, 완벽하게 재연할 수 없는 환경이 원인이다. 귀여움을 핑계로 구경거리가 되고, 자극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삶은 보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불편한 진실

동물권은 1970년대 철학자 피터 싱어가 주장한 개념으로 동물들도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보호받기 위한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동물원 변화의 배경엔 동물의 위치 변화가 있다. 인간 사회 안에서 인간을 위한 도구, 기계로 여겨지거나 농경 사회에서는 절대적 존재, 그리고 때로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다. 현대에서는 동물권의 개념이 등장하며 동물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에 관한 예로는 동물 착취에 반대하는 비거니즘과 동물실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는 '동물권행동 카라'가 활동하며 다양한 동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이다.

변화할 시간

동물원은 동물들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진 않지만, 그들을 보호하는 곳이기도 하다. 오갈 곳 없는 야생동물들의 쉼터가 되거나 멸종위기의 동물들이 불법으로 다뤄지는 일을 막기도 한다. 고대부터 존재해 온 동물원은 그 형태를 매번 달리해 가며 우리 곁에 있었고, 현대의 동물원은 더 급격하게 변화하길 요구받고 있다. 동물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물을 소비하기 위한 시설이다. 동물권의 등장과 함께 동물도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따라서 이런 소비적인 시설은 지양해야 한다. 동물원이 다시금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로 다가오면서 그 인식 또한 중요해야 함이 맞는데, 지금의 우리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다. 진정으로 동물을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올바른 태도와 관심을 가지고 동물들을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어디까지 알까?

기부 챌린지

황하윤 학생기자 hyunn0429@naver.com



루게릭병 환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이벤트이자 기부 챌린지인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최근 SNS를 통해 재유행하고 있다. 8년이 지난 지금,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다시 유행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루게릭병 치료제가 5년 만에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재유행으로 인해 다른 여러 기부 챌린지들도 다시금 화제가 되었다. 이는 우리에게 사회에 대한 따뜻한 인식을 심어주고 기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는 또 어떤 방식의 기부 챌린지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다양한 기부 챌린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스 버킷 챌린지보다도 부담 없는 여러 챌린지들이 생겼지만 SNS는 자극성, 화제성이 있어야 하기에 우리에게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시간을 내어 찾아보면 일정 걸을 수를 채우면 기부가 되는 '나눔 걷기 운동 챌린지', 긴급 수술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자전거 하이킹 기부 챌린지',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부케 챌린지',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마음 한 끼 캠페인'와 같은 다양한 챌린지가 존재한다. 이처럼 다양한 기부 챌린지들의 선행 방향은 다양하게 나뉘고 있다. 최대한 실천하기 쉬운 종목을 정해야 기부 챌린지의 참여 인원 확산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 이를 따라하는 참가자가 늘기만 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에 부담이 적을 것이다.

선한 영향력과 기부의 목적

챌린지는 특정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환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2019년 11월 처음으로 보고된 새로운 유형의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고

자 '덕분에 챌린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해 2020년 4월 16일부터 진행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존경합니다'를 뜻하는 수어를 찍어 올리는 챌린지이고, 위에서 설명한 기부 챌린지 성격을 토대로 이 챌린지 또한 참여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의 챌린지가 유지되기 위해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덧붙여, 참여하는 사람도 기부의 목적성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 의미를 퇴색시켜 사익을 위한 보여주기식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본래의 목적이 무색해질 때

활발해진 챌린지 열풍이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는 마음에서 시작된 '덕분에 챌린지'가 큰 화제가 되면서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4만 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특히 연예인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일부 연예인들의 참여 이후 행보가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 유명 가수가 음주 후 노래방에서 열창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그러나 당시 두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 시정 후 방송을 종료했다. 이날은 방역당국이 유흥주점, 노래방 등을 고위험시설군으로 분류한 날이었으며 두 가수 모두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한 이력이 있었기에 비판을 면치 못했다. 공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기부의 본래 목적을 잊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부 챌린지가 재유행하게 된 이유 및 SNS로 인해 알게 되는 챌린지들과 다양한 기부 챌린지의 목적성, 이면을 알아보았다. 본 기사를 통해 기부 챌린지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다양한 챌린지에 대해 보고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그리고 챌린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실천하는 모든 선행들의 본래 목적이 변질되는 것에 경각심을 잃지 않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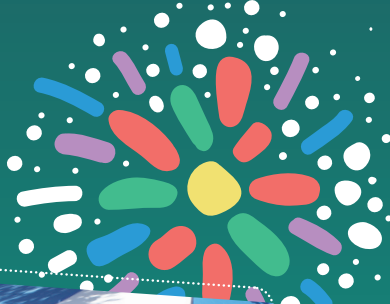


2023 EULJI UNIVERSITY FESTIVAL



2023 을지축전

성남캠퍼스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이봄'



푸드트럭 거리



성남시청소년재단, 취업 이미지메이킹



주점에서 놀아볼랩?!



식을 줄 모르는 성남캠의 밤



꽃보다 미화



응급구조학과, 심폐소생술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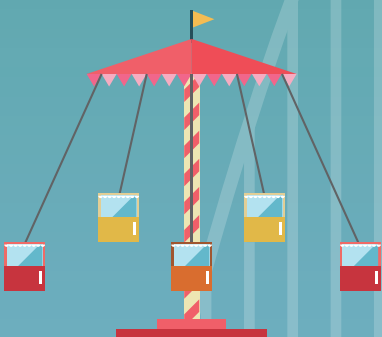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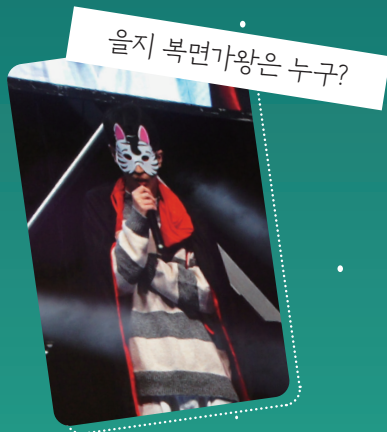
학보사 홍보 부스 운영



홍성희 총장님의 축전 격려금 전달

홍디&장지, 더 오싹해진 귀신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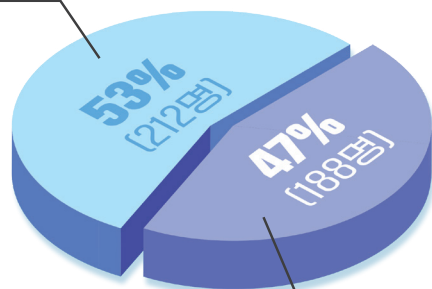




설문조사

통학, 당신의 선택은?

직행버스 2시간



설문 기간: 10.5.~10.6. 을지축전 기간
설문 대상: 상남캠퍼스 재학생 400명

지하철 2번 환승

설문 결과는 직행버스를 선택한 인원이 지하철보다 6% 더 많았다. 지하철을 택한 사람은 “긴 시간을 들이는 것이 꺼려진다”, “직행버스의 요금이 지하철보다 비싸다” 등을 선택 이유로 들었다. 반면, 직행버스를 고른 사람은 “지하철과는 달리 앉아서 편하게 올 수 있어 더 낫다”, “부족한 잠을 버스 안에서 보충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설문에서 제시한 선택지는 양쪽 모두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도 직행버스라는 선택지가 조금 더 많은 득표수를 얻은 것은, 학업과 생계에 지쳐 조금이나마 안식을 취할 시간이 필요한 학우들의 무의식이 작용한 것은 아닐지 추측해 본다.

심수연 학생기자 syshim0224@naver.com



대전캠퍼스



피어오르는 축제의 열기



다섯 번의 기회, 결과는?



긴장감 넘치는 베팅의 순간



반짝이는 불빛, 다양한 놀거리



의정부캠퍼스

무르익어가는 의정부의 밤



긴장되는 순간, 을지로도 1등을 노려라!



어떤 게 나올까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을지포차 일일개장



다음 축제도 기대해주세요!



전증희 을지재단 명예회장 소천



▲ 전증희 을지재단 명예회장

전증희 을지재단 명예회장이 지난 9월 1일 향년 94세 나이로 소천했다.

1929년에 출생한 전증희 회장은 1945년 춘천간호학교를 졸업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간호장교로 자진 입대했고, 부상병이 속출하는 수술실에서 군 간호학의 근간을 마련하고 간호 분야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고인은 1952년 남편이자 을지재단 설립자인 범석 박영하 박사를 간호장교와 군의관으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전증희 회장과 남편인 박영하 박사는 한국전쟁 기간을 포함해 7년 동안 간호장교와 군의관으로 복무했다. 전증희 회장은 대위로 예편한 뒤에는 1956년 을지재단의 시초인 병원을 개원하여 개원 초 야간 간호와 병원 전반 업무를 처리하며 을지재단 성장에 큰 힘을 보탰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는 을지재단 부회장으로 재임하며 의료사업을 통한 국민 보건 향상에 주력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이뤄진 을지의료봉사단을 창단해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왔다. 전증희 회장은 이때마다 앞장서서 현장을 방문해 지역민과 함께 했다.

전증희 회장은 후학양성과 인재 육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개인재산 10억 원을 출연해 1997년에 재단법인 범석학술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으로서 27년간 2,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한, 연구비 지원 사업과 범석상 시상을 전개하여 국내 우수 장학재단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일궈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03년에는 박영하 박사와 함께 100억 원과 2007년에는 3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 2010년에 사재 37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고, 2013년에는 남편인 박영하 박사가 소천하며 남긴 전 재산 172억 원을 학교와 재단에 기부했다. 이렇듯 의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전증희 회장은 2013년 5월 7일 영면한 고 범석 박영하 을지재단 설립자가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사회공헌 자묘역에 안장되었다.



▲ 고(故) 박영하 을지재단 설립자(오른쪽)와 전증희 명예회장

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댄스동아리 DNG 회장 김지현

을지대학교 유일한 중앙댄스동아리 DNG는 올해 5월경 정기 버스킹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작년 을지대학교 축제 무대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과 행보를 보여주었다. 춤을 좋아하고 즐기기 위해 모인 그 의지를 학우들에게 더 깊게 알리고자 한다.

신희진 학생기자 heejin8885@naver.com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을지대학교 댄스동아리 DNG 회장 김지현입니다.

Q. 동아리명 'DNG'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실 저희도 궁금해서 선배님들께 물어봤었는데, DNG라는 이름은 엄청 위 기수의 선배님이 지어주셨던 거라 정확한 의미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같이 추측한 바로는 'Dance and Groove'의 약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공연 준비를 위한 곡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나요?

공연에 참여하는 부원들한테 신청곡을 받은 후 회장과 부회장, 홍보, 회계를 담당하는 4명의 임원이 회의를 거칩니다. 부원들이 소화할 수 있는 춤인지, 호응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판단 후 신청곡을 추천합니다. 그중 2명 이상이 선택한 곡이 공연 카톡 방 투표에 올라가게 되고 익명 투표로 부원들 모두가 참여하여 투표를 제일 많이 받은 곡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Q. 동아리 활동을 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작년 활동 때 군부대 공연 한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4일 만에 안무 맞춰보고 공연해서 그런지 실수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받아본 호응 중에서 가장 컸고 팀원들도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9월 말에 군부대 초조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공연 참여율이 더 높아졌고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다들 완벽한 무대를 위해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Q.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인가요?

공연할 때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열심히 했거나 길게 연습한 무대에서 더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작년 축제 공연도 한 달 넘게 준비하기도 했고 다 같이 너무 열심히 해서 성취감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Q. DNG는 케이팝을 주력으로 곡 리스트를 구성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댄스 장르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번 축제 공연 때는 케이팝보다 코레오, 걸스합합을 주로 할 예정이고, 단체로 하는 멋진 무대도 준비하고 있으니 다들 많이 보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DNG만의 장점이 있다면?

모두 사이가 좋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고 선후배 사이여도 친구처럼 다 친하고 연습이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이 넘치고 다같이 화이팅 하자는 분위기라 항상 재밌게 즐기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Q. 오디션을 보기 전 신경 쓰면 좋은 요소나 팁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오디션은 빠른 습득력을 보기 위해 지정곡을 주고 평가할 때는 표정, 힘, 춤선 위주로 봅니다. 보통 긴장해서 그런지 표정을 제대로 쓰지 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표정 연기도 같이 해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지금처럼 부원들이 재밌게 즐기면서 공연을 준비했으면 좋겠고, 일단 제일 급한 축제 공연을 무사히 마치는게 제 목표입니다. DNG는 방학부터 축제 연습을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늦은 밤까지 공연 준비중이니 이번 축제 공연에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2학기 신입 부원들의 첫 데뷔 무대도 있으니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DNG에 지원하고 싶어 하는 학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도는 모집이 마감되었고요. 내년 3월쯤 부원 모집이 올라갈 예정이니 다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많아서 지원이 두렵거나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없어서 지원을 망설이셨던 분들 모두 걱정 말고 지원해 주세요! 공연 연습이 잦아 다 같이 만나고 친해질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춤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환영합니다.

인스타그램 & 카카오톡 채널 4차 인증샷 이벤트 을지대학교 학보사



'제295호 을지대학보'를 읽고 가장 맘에 드는 기사를 골라 한줄평과 함께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추천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2023.11.1(수)~2023.11.17(금)
- 당첨자 발표** 2023.12.8(금) 예정, 학보사 SNS 공지 및 개별연락
- 당첨 인원** 20명
- 이벤트 상품** 문화상품권 1만원
- 문의** 031-740-7126 / 카카오톡 채널 '을지대학교 학보사'

- 이벤트 참여방법**
- ① 학교 홈페이지 및 학보사 SNS의 링크에 있는 학보 혹은 교내에 비치된 종이 학보를 열람한다.
 - ② 학보사 **인스타그램(@eulji_press)**을 검색하고 팔로우한다.
 - ③ 학보에서 마음에 드는 기사를 찍거나 캡처한다.
 - ④ 인스타그램 게시물 및 스토리로 학보사 인스타그램 태그 및 한줄평을 작성하여 업로드한다.

- 유의 사항**
- ① 인스타그램 비이용자는 **카카오톡 채널(을지대학교 학보사)** 친구추가 후 'SNS 이벤트 참여'를 클릭하여 해당 이벤트를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 ② 당첨자 발표일 기준 인스타그램 팔로우 및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닌 경우,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③ 비공개 계정은 업로드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④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벤트 참여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의무경찰제 재도입

최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다.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이 치안 강화 대책 중 하나로 발표됐는데, 경찰은 "현장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병력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책"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한 학생기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최현민 학생기자 hmchoi0515@naver.com



찬성 **이민서 학생기자:** 난 의경 부활에 찬성해. 물론 그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안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의경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 그리고 의경 인원을 서서히 감축하면서 마지막 기수가 올해 6월 전역했는데, 그때쯤 우리 사회의 치안력 강화 요구가 커졌어. 지금은 과거 의경이 하던 일을 경찰 기동대가 대신하고 있는데, 경찰 기동대와 의경이 이전처럼 분리되어 기존에 각자가 맡았던 업무를 한다면 치안 강화에 더 도움이 될 거야.

반대 **김기찬 학생기자:** 민서 의견에도 어느 정도 공감해. 하지만 의경 재도입은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세운 것인데, 이는 단순히 근무 인원만 늘릴 뿐 실효성은 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의무로 복무하는 청년들을 흉악범죄 현장 최전방에 배치해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내부 인력 재배치를 통해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더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

찬성 **김태경 학생기자:** 의무복무 중인 청년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기찬이 의견에는 나도 동의해.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전국적으로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태야.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인구가 주요 선진국 대비 두 배나 많다는 통계도 있어. 더군다나 의경이 폐지되면서 외부 파견 인력이 늘어나는 등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지. 그중에서도 현장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경찰관과 시민의 안전이 모두 위협받고 있어.

찬성 **신희진 학생기자:** 나도 태경이 의견과 같아. 현재 일어나는 흉악범죄에 대비하기에는 치안력이 부족한 상황이야. 의경 폐지 이후 경찰 기동대 인원이 증원되긴 했지만, 의경이 있던 때에 비하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그로 인해 순찰 및 단속에 지장이 생기기도 하지. 게다가 코로나 종식 이후 경찰 업무가 늘어난 상태인데, 의경이 부활하면 경찰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거야.

반대 **맹지환 학생기자:** 인력 부족 문제는 경찰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야. 의경이 부활한다면 병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질 거라고 봐. 현재 매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군 복무 인원도 줄고 있어. 실제로 2012년에는 육군 병력만 50만 명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삼군을 다 합쳐도 50만 명에 못 미친다고 해. 이런 와중에 의경 부활로 인해 복무 자원을 추가로 빼앗기면 군에는 부담이 될 거야. 치안력 강화는 필요하지만, 의경 재도입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반대 **설지은 학생기자:** 나도 지환이처럼 병력 부족 문제가 가장 우려돼. 의경이 폐지됐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 물론 의경이 재도입되면 경찰에 도움은 될 거야. 하지만 가뜰이나 현역병 자원도 모자란 상황에, 경찰력 강화를 위해 의경을 부활시키면 반대급부로 국방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경찰 공무원 수를 늘리고 현역병 인원은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

치안력 강화 및 경찰 조직 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부터, 치안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병력 부족 문제가 우려되니 의경 부활은 부적절하다는 입장까지 학생기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학우들의 소리 엄서

저희 학보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모두의 학보를 만들어보고자 소리 엄서를 받고 있습니다.
성익껏 작성하여 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리 엄서

- Q1. 이번 호 기사 중 좋았거나 부족한 것은? (기사내용)
- Q2. 다음 호에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인물추천, 기사 등)

294호 소리 엄서 당첨자

김소연 (의료IT학과), 김유리 (의정부 간호학과), 김유진 (의정부 간호학과), 김정희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나유빈 (치위생학과), 서지민 (응급구조학과), 손송찬 (물리치료학과), 최진영 (안경광학과), 한동훈 (의료공학과), 홍채원 (식품산업의식학과)

학과 _____ 학번 _____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여러분은 을지대학교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 갈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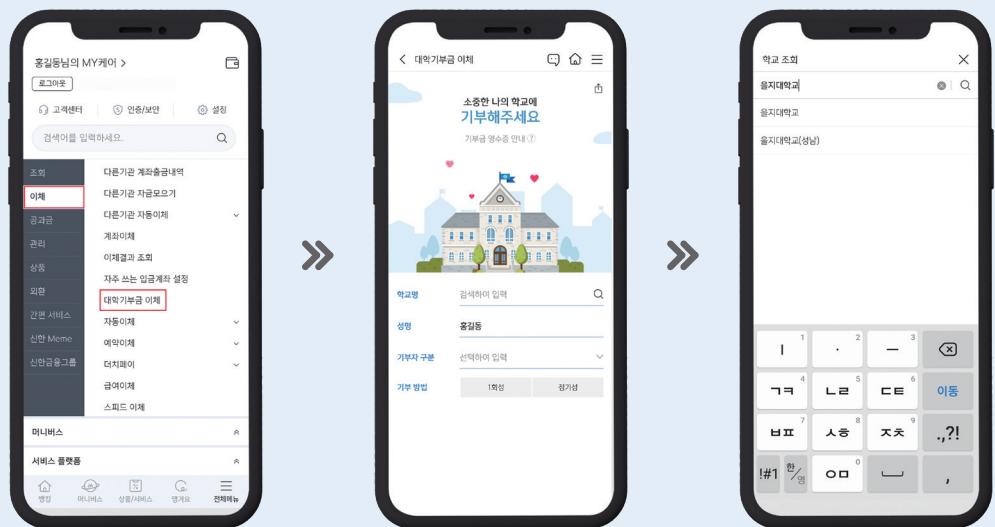
후원방법 01

QR 코드를 통한 신청서 작성



후원방법 02

앱 사용(신한은행 SOL 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전체메뉴 ▶ 이체 ▶ 대학기부금 이체

학교명 검색

① 발전기금: 을지대학교 선택
② 장학금: 을지대학교(성남) 선택

후원방법 03

지로통지서 후원(지원금액 자율)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출연해 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식 퀴즈

Q. 000은 반응성이 강한 금속으로,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얇은 막을 형성해 더 이상 산소와 반응하지 않고 내식성이 강해진다. 또한 강도와 연성을 가지고 있어 인공 힌트 조인트, 인공 심장, 심장 박동 조절기와 같은 의학적 용도로 사용하기에 이상적이다. 아이언맨의 슈트를 이루는 물질로 영화에 등장했으며, 최근 아이폰 15가 000케이스 모델로 나와 화제가 되었다. 위의 000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정답

학보 배부대에 있는 소리엽서함에 넣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온라인 소리 엽서 제출 방법

- ① 카카오톡 채널 '을지대학교 학보사' 검색 후 친구 추가하기
- ② '채팅하기' 클릭 후 하단바의 '295호 소리 엽서 제출' 클릭
- ③ 채팅 메시지로 안내되는 '소리 엽서 제출하기' 클릭 후 정보 입력하기

294호 소리엽서 퀴즈 정답

홈플레이트